



# 전세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국세보다 전세보증금을 최대한 우선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

주택임차인이 거주하던 집이 올해 4월부터  
공매·경매된 경우, 해당 주택에 부과되는 국세에 우선하여  
주택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4월 1일 이후  
해당 주택이 매각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국세가 4월 이전  
체납된 경우에도 소급하여 적용이 가능

2023.3.27.(월) 국민일보

“빌라왕 피해자, 집 팔려도 보증금 못 받았다”

보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